

국힘 비대위로 총선...“국민 눈높이 맞는 위원장 선임”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전당대회 열 상황 안돼...빠른 시간 내 구성”

국민의힘이 14일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따라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김 전 대표 사퇴 다음 날인 이날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또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비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동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명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급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등 구성해야 하는

큰 조직이 3가지 있는데, 이 조직을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중순으로 예상했던 공관위 출범과 관련해서 “당헌 당규상 1월 10일까지 구성해야 하므로 그 규정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사퇴 선언과 함께 지역구 불출마도 선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당 대표직에 내려와서 당에 혁신의 길을 터줬다.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라고만 언급했다.

이날 최고위에 앞서 열린 중진연석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윤 권한대행은 연석회의 뒤 기자들에게 “대부분이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당내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런 분을 모시기 위해 의원총회라든 지 당 안팎의 여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줬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다음날인 14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가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의 국힘’ 구할 구원투수 누가될까 김한길·한동훈·나경원·김병준 거론

인선 기준은 국민 공감·총선 승리

국민의힘이 4개월 남은 총선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치르기 14일 결정하면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네덜란드 국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비대위 전환에 한층 더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은 국민 눈높이와 국민 공감, 총선 승리 세 가지다.

당 안팎에선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놓고 한마음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거론된다.

전략 기획에 밝은 ‘노련한 정치인’인 그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새 정부 출범을 도왔고, 줄곧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층이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점이 다소 부담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석계 조선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비대위원장이 오보이길 바란다. 이렇게 거론되는 자체가 당이 우스워졌다는 증거”라며 “바뀌어야 할 것은 용산이고 대통령이다. 그에 맞는 비대위원장이 와야 한다”고 했다.

당내 주류 의원을 사이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높은 인지도와 화려한 언변으로 ‘스타성’을 갖춘 한 장관이 수도권 분위기 반전을 위해 반드시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사 출신인 데다 현직 장관 신분인 점, 선거를 지러본 경험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 바람몰이’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출연, “비대위원장에 오려면 (장관직에서) 바로 사퇴하고 처리돼서 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주류 희생’ 혁신안 등으로 인적 쇄신 분위기를 조성해 낸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비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언행, 정치 경험 부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당내에서는 3·8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데도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 논란 속에 당권 도전을 접어야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적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밖에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21대 총선 전에 이미 비대위를 이끈 경험이 있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거론된다.

尹, 네덜란드 방문 일정 마무리... ‘반도체 동맹’ 명문화

“반도체 초격차 유지 긴밀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민 방문 목표는 오롯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

이 기간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ASML의 클린룸 시찰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고,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와의 연대를 통해 반도체 생산 전(全) 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 수급을 다변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끝내며, 3박 5일의 네덜란드 국민 방문의 주요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할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두 나라가 외교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제조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미일의 결속을 통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 윤석열 정부에 네덜란드는 핵심 협력 국가다.

당정 “난임부부 시술 보험 지원 16→20회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 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당 당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여성 중증 질환 중 하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 기간 확대와 골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웨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감감될 경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아 1형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간·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눔게 큰 아이 지원사업

“나눔게 큰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눔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일대